

■ 이용정보 크루저 노트북

크루저 노트북의 가장 큰 특징은 LCD를 분리하여 OHP 프로젝터위에 놓고 곧바로 프리젠테이션이나 세미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노트북의 화면이 그대로 스크린에 옮겨진다. LCD패널도 필요없다.

이러한 LCD 분리 기술은 이 노트북의 제조사인 REVER사의 세계 특허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용정보에서 수입 공급하고 있다.

크루저 노트북은 인텔 486D×2/50MHz의 CPU로 장착되어 있지만 제품모델에 따라 D×2/33MHz, D×4/75MHz까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D×2/50MHz CPU는 3.3V의 저전력으로 구동하므로 노트북의 발열량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메모리는 기본이 4MB이며, 필요에 따라 최대 24MB까지 탑재할 수 있고, 기본으로 주어지는 하드디스크 용량은 착탈식 250MB이고 340MB를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다. LCD는 선명한 640×480dpi의 해상도에서 512컬러를 구현하는 TFT로서 VL버스용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고 있어 프리젠테이션용으로 손색이 없다. 외부모니터와 연결하면 1024×768dpi의 해상도와 256컬러를 구현한다. 오디오카드는 8비트용. 확장포트를 보면, 팩스모뎀이나 랜카드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PCMCIA 타입 II, 슬롯 두개, 필요에 따라 타입 III용의 하드디스크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 휴대용 포켓모뎀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시리얼 포트가 1개, 프린터나 외부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를 연결할 수 있는 패러렐 포트 1개, 외부키보드 포트, 외부모니터 포트, 도킹 스테이션 연결포트, SCSI-II카드 포트 등이 있으며 TV



HARDWARE

나 비디오, 캠코더 등과 연결하여 각종 영상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어댑터 커넥터가 있다. 도스스테이션과 연결하면 16비트 확장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노트북이 가지는 단점인 확장성 부족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 입력장치로는 84키 키보드와 에 트랙볼을 내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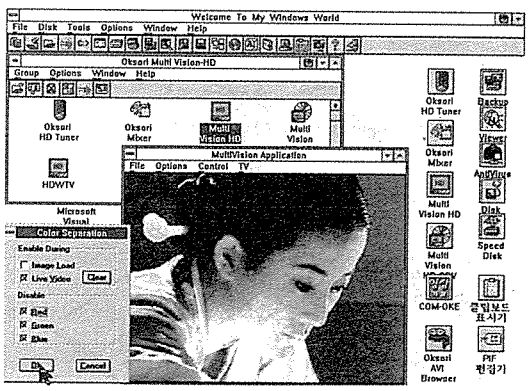
이 노트북의 주된 활용 분야는 기업에서의 프리젠테이션외에 교육이나 강의, 세미나, 영업 등 매우 다양하다. Ni-

MH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크루저 노트북은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기 위해 4종류의 절전 모드를 셋업 프로그램에서 지원하고 있다. 전원이 갑자기 차단되거나 일정한 시간동안 입력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배터리의 충전 에너지가 다 되었을 때 일단 현재의 작업 환경을 그대로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전원이 들어오면 바로 전의 작업환경으로 돌아가는 하이버네이션 기능을 갖는다.

◆ 소비자가격 5백70만원(부가세별도)

■ 영상 오버레이보드 - 멀티비전 HD

19만원대의 저가이면서 PC HDTV 수준의 고화질을 실현할 수 있는 옥소리 멀티비전 HD출시



◇ 다양한 영상 편집기능으로 특수효과가 가능하다



◇ 다양한 옵션을 통해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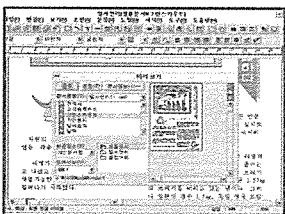
- ⊕ 구성
 - 램 : 기본 1MB • 입력단자 : 내장2, 외장2, S-VHS
 - 제어 프로그램 : 도스용 HDTSR, 윈도우용 Multi-Vision
 - 번들 프로그램 : 비디오스튜디오 2.0외 35개 제공
 - 가격 : 19만 8천원
- ⊕ 옵션
 - 1MB 내장 램 : 3만 5천원 • TV튜너 : 6만 6천원

멀티비전 HD는 총 5개의 비디오 소스 입력 단자 제공, 화질을 대폭 개선해 TV 수신 카드만큼의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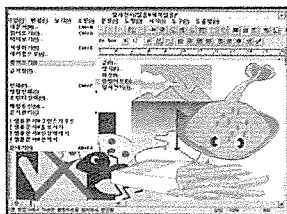
도스 램상주 프로그램인 HDTSR이 기본적인 재생과 조절 기능만 가지고 있지만 윈도우 프로그램용의 MULTI-VISION은 본격적인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MULTI-VISION은 정지화면 캡처, 캡션 출력, 동영상 캡처, 재생, 편집과 같은 오버레이 보드의 기본 기능 외에 몇 가지 특수 기능을 지원한다.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출력 영상을 반전시키는 미러 기능, 일부 프레임을 삭제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볼 수 있는 스트로브(Strobe)기능, 재생중 축소/확대 해도 화면이 끊기지 않는 실시간 줌 기능, 그리고 색상 분리 기능이 있다.

■ 포스테이터 - 일사천리 3.0



◇미리보기 기능으로 파일을 읽기 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클립아트를 제공한다.

포스테이터는 기존 2.0 버전에 비해 처리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면서 강력한 문서편집과 조판기능, 편리한 사용 방법을 보강한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 일사천리 3.0을 개발 시판했다. 3.0버전에 내장된 지습용 프로그램은 성우의 나레이션과 음향효과, 2-3차원 그래픽 등 멀티미디어 효과들을 적절하게 결합해 실제 작동화면을 자동으로 보여주면서 대화형 진행방법을 통해 초보자도 친숙하게 프로그램을 익힐 수 있도록 했다. 2천개의 클립아트를 대거 수록해 사용자가 색상, 모양, 크기 등을 용도와 기호에 따라 자유자재로 편집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의어/반의어 사전기능까지 내장하고 있다. 일사천리 3.0은 메뉴화면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각주기능, 색인기능, 목차기능 등 조판기능을 확장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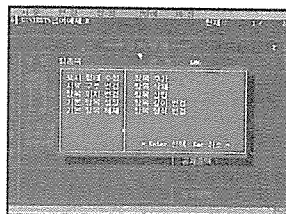
SOFTWARE

또한 한번에 여러 개의 선을 그리고 선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30여종의 203차원 그래프를 지원하는 등 윈도우즈용 워드프로세서의 두드러진 장점인 그래프 작성 기능이 돋보인다. 일사천리 3.0은 아래아 한글, 하나워드, 보석글, 명필, 포스워드, MS워드 등 다른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문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가격은 12만 9천원 (부가세포함), 업그레이드(4만4천원)

■ 한국데이터베이스 - 도스자료관리 2.5

자료관리2.5는 1990년 버전 1.4가 선보인 뒤로 꾸준한 기능 보강을 거쳐 탄생된 국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다. 자료관리가 처음부터 줄곧 추구해 온 방향은 PC사용자 누구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없이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데이터 테이블 시각화에 충실한 기본 화면을 구성, 사용자 위주의 제품을 제작하는 것이다.



◇데이터 입력화면설계가 자유롭다

버전 2.5에서 강조되고 추가된 기능도 프로그래밍 부분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매우 필요하면서도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료관리 2.5는 이전 버전에 비해 화면의 구성이 깔끔해졌고 자료처리속도가 향상되었으며 보호모드를 지원하여 메모리를 최대 16MB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메모리 최적화 기능을 추가하여 이전 버전보다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면서도 큰 용량의 데이터 파일을 읽을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다. 그 중에서도 매크로 기능 및 다차원합계 기능 등은 실무에서 크게 환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격은 9만9천원(부가세포함)

■ 코렐

프리젠테이션 프로그램 코렐 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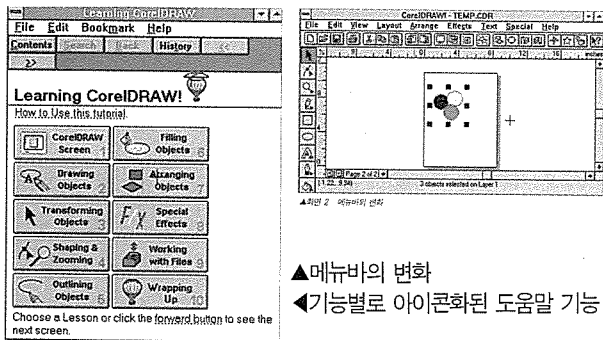
전자출판용 그래픽 프로그램인 코렐드로우로 유명한 코렐사가 코렐 플로우 (Corel Flow)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프

리젠테이션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 제품은 전문 그래픽 프로그램 제작 회사에서 나온 프로그램답게 다양한 그래픽 기능과 사용법이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먼저 각각의 페이지에 자신이 원하는 그래픽과 텍스트 등의 내용을 채우고, 이를 직선이나 곡선으로 연결한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 시에는 이를 플로우차트나 다이어그램 식으로 보여 주면 되는 것이다.

스타일 팔레트와 심볼 등의 그래픽 이미지가 담긴 라이브러리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그래프 앤드롭으로 불러 들일 수 있다. 또한 OLE 2.0을 지원하므로 다른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그래픽이나 문서, 도표 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100여 개의 트루타입폰트를 제공한다.

◆가격은 99달러.



■ 차세대 통신기인 개인휴대통신기(PDA)들

소니社 '매직링크' · 휴렛팩커드社 'HP 200'

95추계 컴덱스쇼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소니의 개인휴대통신기(PDA) '매직링크'는 약 6백g 무게의 손바닥 크기로 이동중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최첨단 컴퓨터통신기기. 이동 통신망으로 주컴퓨터와 연결, 대량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이다. AT&T는 일본 소니사가 개발한 이 개인휴대통신기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 서비스를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AT&T가 제공하고 있는 통신망 서비스 명칭은 '퍼스널 링크'로 올해초부터 개인휴대통신기 등을 이용, 각종 소필 등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액정화면에 플라스틱 펜으로 글씨를 입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명령이나 기능수행을 선택해 작동할 수 있

도록 하는 윈도우형으로 구성된 PDA 단말기가 이용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가격은 9백95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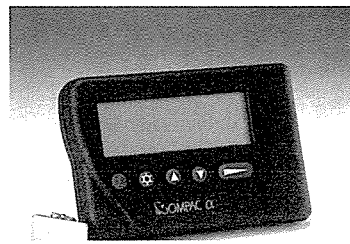
애플도 '뉴턴 메시지패드 110'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각종 응용 소프트웨어와 협력업체를 통해 통신용 부속품 등을 대거 선보였다. 이 기기는 손으로 쓰는 문자를 기계가 척척 알아듣고, 그림으로 매직링크와 같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TE사는 뉴턴을 장착, 무선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를 개발, 애플 전시장에서 같이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관심을 끈 개인휴대통신기 겸 컴퓨터는 휴렛팩커드의 'HP200'.

소니나 샤프, 애플사 등의 개인휴대통신기와는 달리 개인휴대통신 기능을 하면서 자판이 있고 MS-DOS가 돌아간다. 말그대로 '주머니속의 컴퓨터'이자 21세기의 통신기인 셈이다. 전자우편을 보내기도 하고, 컴퓨터를 작동하듯 각종 업무도 볼 수 있다. 이 컴퓨터는 휴렛팩커드의 HP스타링크로 연결, 개인정보관리, 전자우편 송수신이 가능하며, 뿐만 아니라 스포츠, 뉴스 등 각종 정보도 받아 볼 수 있다.

이제 전세계는 개인휴대통신기와 팜톱 컴퓨터가 개인정보 관리차원의 기계가 아닌 본격적인 이동용 정보통신기기로 발전하면서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술상자같은 휴대통신기기들은 올해부터 줄줄이 본격적으로 출고돼 사람들의 생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될 전망이다.

■ 스탠더드 텔레콤, 무선호출기 Compac - α



(주)스탠더드텔레콤은 최근 세련된 디자인과 첨단기능이 장착된 한글 문자 서비스용 무선 호출기 Compac-α를 개발,

소비자에게 선보이고 있다. 이 제품은 75×55×15의 작은 크기와 67g의 무게로 기존 한글 호출기보다 20%가 가벼워 휴대하기에 편리하고, 26,880개의 문자와 112개의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어 방대한 기억 용량을 자랑한다.

이외에도 사용자의 편의대로 분자의 크기와 LCD의 밝기를 3단계로 조정할 수 있어 차세대형 무선호출기로 평가받고 있

으며 데이터 저장기능, 메시지 감춤기능, 문자크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다. 또한 전화번호와 이름이 동시에 입력되어 사용자가 필요한 곳으로만 전화를 걸 수 있어 매우 편리한 제품이다.

■ PDA시장을 다시 일으킨 사이먼(SIMON)



FOCUS

애플 컴퓨터는 지난해 8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뉴튼」 퍼스널 디지털 어시스턴트(PDA)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흥분은 사람들의 외면과 판매 저조 등으로 빨리 지워졌다.

손으로 쓴 필체를 알아보고,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전화통화를 연결하고, 한편에서는 간단한 컴퓨터 조작도 하는 휴대용 기기를 사기 위해 수백만 명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실망도 컸다. 그동안 컴퓨터 업체들은 PDA 기술 개발에 너무 많은 돈과 시간을 쏟아 부었음에도 「뉴튼」실패는 그들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런데 최근 PDA의 새물결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벨사우스는 「사이먼」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팩스, 전자 메일과 음성 통화를 다루는 셀룰러 전화이다.

IBM이 Bell South사를 위해 디자인하여 만든 무게 500g의 이 기기는 통신기기인 셀룰러폰에 터치스크린, 도스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등 각종 응용프로그램을 내장하여서 컴퓨터 기능을 부가시킨 제품으로서 셀룰러폰을 결합시킨 PDA이다. IBM에 의해 제작, 설계된 이 제품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이나 주소 등 개인정보관리가 용이하며,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받아 볼 수가 있다. 주소록, 시계, 노트패드, 파일시스템, 달력, 스케줄, 팩스를 송수신하는 프로그램 등 11개 프로그램과 전화기능을 두개의 메인스크린을 통해 조작하며 이러한 응용프로그램들을 같이 사용하여 컴퓨터의 개인 정보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외부와의 데이터 송수신은 사이먼에 장착되어 있는 타입 II PCMCIA 슬롯에 플래쉬 메모리 카드를 꽂아서 이용하는 방법과 내장되어 있는 2,400 bps모뎀을 이용해서 벨사우스 셀룰러 통신망에 E-메일을 보낼 수도 있다.

둘째, 사이먼에는 키패드가 없다는 것이다. 대신 후면 발광판 LCD 터치스크린이 있으며, 이 스크린에는 메뉴, 카렌다, 다이얼링을 위한 숫자 키패드, 문자입력을 위한 알파벳 키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본 제품에서 제공하는 스타일러스나 손가락을 이용하여 원하는 아이টে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문자입력 방식에 있어서도 매우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사이먼의 키패드는 26개의 키가 아닌 6개의

문자 키패드로 구성되어 있다. 즉 6개의 문자들이 조합을 이루어 다음에 선택될 문자를 추측하여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이다.

사이먼은 하드웨어상의 특수성과 기능성면에서 상당히 인텔리전트한 제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다.

그 한가지는 가격이 비싸다는 점으로 애틀란타에 있는 벨사우스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람은 8백99달러, 비가입자는 1천99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기능이 적다는 것이다. 초기 사이먼의 경우 컴퓨팅 본위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IBM사와 통신 본위의 Bell South간의 의견 차이는 OS, 인터페이스 타입에 대한 합의 도출을 어렵게 했고 사이먼의 시장 진출을 그만큼 지연시켰다.

초기 제품에서 제공하는 도스 인터페이스는 사이먼같이 조그마한 스크린상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고 또 잘 돌아가지 않는 단점을 보였지만 이 점을 보완하여 터치스크린은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컴퓨터 기능을 모두 갖춘 제품을 원하는 사용자들이 바로 사이먼의 타깃 소비자이며 그들은 데스크탑 컴퓨터 사용자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셀룰러폰 사용자에게 가깝다.

1996년에는 메모리 확장과 포켓폰 사이즈만한 크기로 감소시킬 계획에 있는 사이먼은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다닐 필요없이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고, 또 어디 있든지 원하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기를 바라는 한국의 유저들에게도 인기를 누리기에 충분할 것이다.

■ 미리보는 윈도우 95

지난해부터 소문만 무성하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카고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정기개정판 체제를 버리고 '윈도우즈 95'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밝힌대로 1년에 한 번씩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정책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93년말 시카고라는 이름으로 뿌려진 '윈도우즈 95'의 시작품에 이어 94년 4월 영문 베타 1, 6월 동양판 버전 등 일련의 테스트용 버전을 배포함으로써 '윈도우즈 95'의 실체가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윈도우즈 3.1과 윈도우즈 포워그룹은 도스에서 운영되며 노트북 및 데스크탑 PC 플랫폼용으로, 윈도우즈 NT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플랫폼용으로, 윈도우즈 NT 서버는 서버 플랫폼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에 반해 '윈도우즈 95'는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각종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일종의 운영 체제이며, 한편으로는 일관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윈도우즈 95'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32비트 운영체제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통합형 고성능 네트워킹, 내장된 메시징 기능, 휴대용 및 원격 컴퓨터 사용자들을 위해 개발된 리모트 네트워크 액세스 및 파일 비동기 기능 등을 통해 윈도우 통신 기능을 향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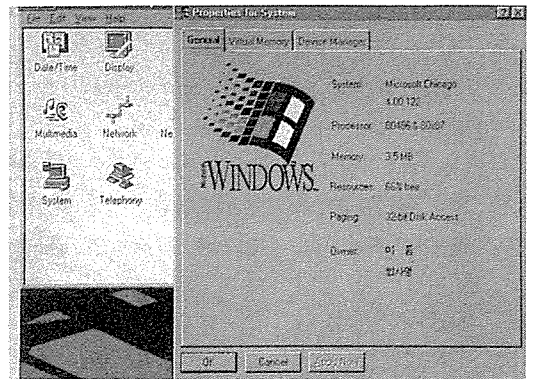
'윈도우즈 95'가 불과 수개월만에 한글 버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내부적으로 유니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시카고가 외부적으로, 즉 사용자 수준에서 유니코드를 지원하지는 않는다. 내부적으로 유니코드가 지원된다는 것은 이미 아스키 시대를 떠나서 유니코드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만국공통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이기도 하다.

'윈도우즈 95'는 하위구조 시스템에서 메모리 사용을 최적화 시켜 줄 새로운 작업세트관리기술을 구현한다. 특히 네트워킹, 디스크 및 페이징 캐쉬들이 통합될 예정이다. 프로텍티드 모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역동적으로 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드라이버만이 메모리를 소비하는 방식을 취한다.



TREND

'윈도우즈 95'를 사용하다 보면 윈도우즈 3.1과 다른 점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된다. 파일이름을 255자까지 붙일 수 있는 것이 그중 하나이고, CONFIG.SYS, AUTOEXEC. BAT, WIN.INI, SYSTEM.INI 등의 초기화 파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16비트 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위해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음) 점도 있다. 또, 네트워크 기능이 강화되었고, 오른쪽 버튼 기능과 확장 카드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플러그



◇ 플러그 앤 플레이 대상이 되고 있는 윈도우 95

앤 플레이 기능이 지원되는 등 많은 기능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은 이를 지원하는 확장 카드에서만 동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그 힘을 확인할 수 없어 이롭다.

'윈도우즈 95'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솔루션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네트워크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IBM이 새로운 각오로 OS/2의 새 버전 '워프'를 이미 발표해 놓고 있어 향후 운영체제의 불꽃 경쟁이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치 시카고가 '윈도우즈 95'가 아닌 윈도우즈 96이 될 것 같은 자료를 간간히 흘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IBM은 미국에서 OS/2 워프라는 제품을 공식 발표한 후 시장 점유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런 행동은 OS/2워프를 먼저 발표하게 함으로써 완성 단계인 '윈도우즈 95'가 분위기를 잘못 타서 시장에서 빛을 잃게 되거나 기능상 별 차이가 없을 경우를 우려해서 인지도 모른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한 대로 미국적 분위기에서 내년 하반기에 '윈도우즈 95'가 출하된다면, 그것은 '윈도우즈 95'가 아니라 윈도우즈 96이라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ST**